

# 천불정사, 지역 고시생 지원 '눈길'

### 12월 29일 부산대와 약정서 체결

201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신익승(행정학과 02학번)씨가 합격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은 다른 아님 부산 천불정사, 고담 스님이 있는 곳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합격자 천민정(경영 07학번), 이상후(법학 06학번)학생도 고담 스님께 감사하며 거듭 절을 올렸다. 그들은 물심양면 후원을 아끼지 않은 스님에게 감사하며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스님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 행정고시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는 천불정사는 고시생들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구랍 29일 인재발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부산대 총장실에서 부산대 발전을 위한 참여 약정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천불정사는 매년 10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을 부산대 5급 행정직 공채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

협약식 자리에는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부산대 김기성 총장,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강재호 지도교

수의 천불정사 신도를 비롯한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이 참가했다.

고담 스님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며 고시생을 향한 격려를 당부했다.

고담 스님의 인재발사는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했다. 천불정사 고담정(古潭亭) 3층을 부산 행정고시

2006년부터 기숙사 제공  
부산대에 1억 3000만원 기부  
비행 청소년 템플스테이 계획

준비생들을 위해 8년간 무상으로 공간을 내주며 지원한 것. 당시 부산대학교는 행정고시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5년 부산대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했다. 그간의 고담 스님의 도움을 기리는 차원에서 부산대 행정고시생들을 위한 공부 공간 신목정(信木庭)에 고담정 현판을 걸고 구랍 29일 현판식도 아울러



천불정사가 부산대 총장실에서 발전 기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부산대 행정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진행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고담 스님은 부산대 신목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000만원, 총 8000만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수험생들을 천불정사에 정기적으로 초청해 공양과 덕담으로 지도 격려해왔다.

고담 스님의 인재 발사는 비단 부산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1993년부터 결혼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천불정사에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여명의 수험 준비생들이 찾아와 무료로 숙식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스님은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방해요소를 없애고 노력한 결과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인사하며 나간다"고 전했다.

앞으로 고담 스님은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소외된 곳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3개월~6개월 과정의 교화 템플스테이 이를 여는 것이 목표다.

고담 스님은 "비행 청소년이란 어린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사회의 문태로 빚어진 결과일 뿐"이라며 "청소년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2015년 한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요"

### 부산 한마음 선원, 새해맞이 '하나로 포행'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은 하나로길 포행으로 새해의 문을 열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해도, 이하 부산 한마음선원)이 새롭게 만든 하나로(路) 산책길에는 '주인공', '부처님의 마음', '자비의 등불' 등 새해 발원들로 가득 차 있다.

부산 한마음선원에서 '2014년 철야정진 및 2015년 새해맞이 하나로(路) 포행'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번 하나로 포행은 지난 새벽 예불과 떡국 공양 나누기만 해왔던 새해맞이 프로그램에 하나로 산책길을 조성하면서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2014년 12월 31일 철야정진 수행, 촛불제 및 캠프파이어에 이어 2015년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로 새벽예불, 발원문 적기, 일출 해맞이 마지막 순서 '하나로 포행'으로 이어졌다.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해도 스님은 "하나로는 선원의 좁은 산책로지만 그 길을 걸으며 낼 수 있는 마음은 무궁무진하다"며 "내 마음의 근본을 발견하겠다는 큰 마음과 나와 이웃을 위하는 대장부의 마음을 내면서 새해 첫날, 한 걸음 한 걸음 내면을 살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하나로 산책길 끝에 위치한 명상센터에서 참가자들은 동그랗게 만든 나무에 서원을 적었다. 이어 길을 따라 엮여져 있는 철망에 서원들을 붙이고 발원하며 마음을 모았다.

이날 하나로 포행에 참석한 청년회 한정석(33)씨는 "길을 걸으며 스스로 정진의 마음을 다져 연말 연초가 더욱 보람됐다"고 말했다.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포행 길을 더욱 자주 밟고 싶다는 정옥선(61)씨는 "하나로를 걸으며 마음의 심터를 만난 거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해에는 도반들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길 발원했다는 김상덕(58)씨는 "하나로는 내가 걷고 있는 마음공부 길 같았다"며 "끝없이 에너지를 주는 멋진 길"이라고 말했다.

해도 스님은 "누구라도 오셔서 하나로를 걸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 부안 내소사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 자연정화 캠페인 참여 학생들에게 총 500만원 전달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가 부안군내 미래세대 후원을 위한 장학금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지역 사회에 미답이 되고 있다.

내소사는 구랍 23일 부안군 관내 제일고, 백산고, 부안여고에 재학 중인 14명의 청소년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장학금 수혜학생들은 번산반도국립공원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부안 하섬 해양생물채취 제한을 위한 자연

정화 활동과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다. 진학 스님은 "미래세대 학생 및 어려운 이웃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번산반도국립공원 관계자는 "장학금을 기탁해준 진학 스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는 자연정화 캠페인 참여 청소년들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광주지역 복지법인 바라밀 후원행사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교)은 구랍 29일 광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2014 광주전남불교사회복지 발전기금마련 행사'를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광주전남불교사회복지 발전기금마련 행사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내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강화하고, 참여실간의 상호 원조망을 구축하고자 개최됐다.

행사는 오전 11시 기금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중무식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양형성 광주전남지사장**

## 반야심경으로 풀어보는 '대념처경'

### 미타선원 특별강좌 개최

반야심경의 조건온개공도일체고역(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이 핵심 구절로 대념처경의 수행법을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행복선수행학교 및 재가인간 수행프로그램으로 '반야심경과 함께하는

대념처경'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1월 15일 강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총 6강이며 매주 목요일 주간반은 오후 2시, 야간반 오후 7시 30분에 각각 개설된다.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6만원, 재가인간 수행프로그램 참가자는 3만원이다. (051)253-8687~8 **하성미 기자**

## 차향으로 나누는 자비 나눔... 용호복지관 하루차집

연말을 맞아 일일 차집으로 자비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구랍 25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회 자비나눔 하루차집을 개최했다.



남구불교연합회 주최 일일차집 자비나눔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차를 만들고 있다.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독거 노인들의 겨울 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일 차집은 문수사, 동명불원, 성암사, 무문홍법사 등 남구불교연합회 소속의 59개의 사찰이 주축으로 열렸다. 여기에 용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남구지역의 상가 및 병원 등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후원해 따뜻함을 더했다. 이날 모인 모연금은 복지기관들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향 될 예정이다.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지역 사회에 구현하고 주변 이웃을 생각하며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일일 차집을 개최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것으로 공덕을 쌓고 정진과 보살행 실천을 다지는 자

리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 무문 홍법사 주지 효명 스님, 부산 남구갑 김정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1023호에 나간 '정암사 신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위촉' 기사에서 정암사를 청암사(주지 지암)로 교정합니다.

**동진기획·붓다쇼핑**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10-2094-2991-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자크지 옵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 크기: 435mm×300mm

###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삼배 삼재돌이

판매가 800원(1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 경면삼배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10×15cm / 9×14cm

### 한지 삼재돌이

판매가 700원(100개 이상)  
정가 900원  
• 포장: 봉투 삽입

###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 금띠지 등표

• 정가 1,000원  
• 200매 이상 @800원  
• 규격: 3.5cm×70cm

### 만사대길·소원성취·학업성취 사업성취·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면에 양면대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금강정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 (50장 이상) 정가 5,000원

- 68cm×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